

일본 사가현의 임란포로에 관한 연구

魯成煥*

(e-mail : nosh1@hanmail.net)

目次

- | | |
|------------------------|---------------------------|
| 1. 머리말 | 3. 사가의 조선포로 |
| 2. 가라츠의 조선포로 | (1) 임일덕과 임영구 부자 |
| (1) 부산해 고덕사와 조선예조의 유고문 | (2) 나염기술을 개발한 이구산 |
| (2) 토진마치의 조선인 기술집단 | (3) 정진(淨珍)과 마키츄자에몬(槇忠左衛門) |
| | 4. 타쿠의 소년포로 |
| | 5. 마무리 |
-

1. 머리말

임란과 정유왜란 중에 일본군에 피랍되어 일본으로 건너간 사람들은 부지기수이다. 역사학자 민덕기는 사료에 의거하여 구체적으로 산출한 결과 9-14만명 정도라고도 했다.¹⁾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당시 일본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은 엄청나게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이 일본에서 보낸 삶의 역사에 대해 우리는 조금이라도 알 수 없을까?

이러한 움직임이 우리의 학계에서도 조용히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 신일철,²⁾ 김태준,³⁾ 정광⁴⁾등이 도공들과 유학자를, 그리고 김옥희가 기독교도가 된 조선여성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적이 있다.⁵⁾ 그러나 시점을 조금 바꾸어 지

* 울산대학교 일본어·일본학과 교수 역사민속학, 비교신화학

1) 민덕기(2005: 395)

2) 신일철(1976: 26-36)

3) 김태준(1977: 51-119)

4) 鄭光(1990: 3-157)

역에 초점을 맞추어 그 지역에서 조선인을 찾아내고 그들이 어떤 역사적 흔적을 남겼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진한 편이다.

그에 비해 일본에서도 지역에 거점을 두고 조선인들을 연구한 사례는 그다지 많은 편이 아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근년에 접어들어 여기에 대한 연구가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鶴園裕⁶⁾는 가가번(加賀藩)의 조선인 포로에 대한 연구를 비롯하여, 中村質⁷⁾가 나가사키(長崎), 木部和昭⁸⁾가 하기번(萩藩)의 조선인 포로에 대한 연구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큐슈 북부에 자리잡고 있는 사가현은 과거 나베시마씨가 지배했던 영지이었다. 그들의 시조격인 나베시마 나오시게는 임진과 정유왜란 때 군사를 이끌고 조선침략에 가담하였을 뿐 아니라 그가 철수를 할 때 수많은 조선인들을 납치해 간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특히 그는 조선도공들을 많이 잡아간 것으로 유명하다. 그리하여 학계에서는 그가 잡아간 조선도공에 대해서는 관심이 높아 연구도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잡아간 사람은 도공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도공이 아닌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조선의 피랍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한 흔적은 여기저기서 감지된다. 더군다나 나베시마는 히데요시로부터 세공인과 봉관녀(縫官女)를 잡아 보내라는 주인장(朱印狀)을 받았을 때 그는 1594년 6월과 7월에 두 번이나 히데요시에게 봉관녀를 잡아 보낸 자이다. 그러므로 그는 도공 말고도 다른 특수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포로로 잡아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이에 필자는 사가의 현지를 방문하여 몇 차례 조사를 벌인 적이 있다. 그리고 초기의 조사결과를 학회를 통하여 보고하기도 했다.⁹⁾ 그러나 조사를 거듭되면서 앞서 발표한 연구가 너무나 미흡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다시 말하여 그 논문은 대폭 수정하고 보충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필자는 다시 사가지역의 현지조사를 행하였고, 그 결과 지금까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선포로들을 찾아내고, 또 그에 관한 기록들을 수집할 수 있었다. 본고는 비록 그 결과의 일부분을 정리한 것이나 시야는 사가시에 국한하지 않고 사가현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어서 조선포로 전체의 실상을 살펴보고 했다.

도공이 아닌 조선포로들도 사가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그 중에서 특히 가라츠(唐津)와 사가(佐賀) 그리고 타케오(武雄) 등지에는 오늘에 이르기까

5) 김옥희(1985: 117-133)

6) 鶴園裕(1990)

7) 大石學(2001: 83-84), (2002: 92-95), (2005: 73-77)

8) 木部和昭(1999: 47-59)

9) 노성환(2008: 273-293)

지 이들에 관한 전승 또는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편이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이 세 지역을 중심으로 어떤 조선인 포로들이 살았으며, 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현존하는 자료와 전승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2. 가라츠의 조선포로

1) 부산해 고덕사와 조선예조의 유고문

사가현 북부에는 충청도의 당진과 똑같은 지명이 있다. 가라츠(唐津)가 바로 그것이다. 이곳은 바다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마주보고 있는 지형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임란 때 일본군들이 이곳 나고야에서 총집결하여 조선으로 출발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러한 관계로 이곳에는 임란은 물론 임란포로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 중 하나가 고덕사의 조선예조 유고문일 것이다.

고덕사는 나카마치(中町)에 있다. 정식 이름은 부산해(釜山海) 고덕사(高德寺)이다. 보통 일본에서 절의 이름은 ○○산이라는 식으로 산호(山號)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절은 이름부터 매우 특이하다. 즉, 산(山)대신 바다를 의미하는 해(海)를 썼고, 그것도 부산이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다. 여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다. 1877년(명치10) 이 절의 주지였던 오쿠무라 엔신(奥村圓心)이 쓴 『조선국포교일지(朝鮮國布教日誌)』에 의하면 이 절을 세운 것은 오하리번의 가신 奥村掃部이었다. 그가 무사를 그만두고 출가하여 교토의 본원사(本願寺)의 승려 교여(教如)의 제자가 되어 이름을 정신(淨信)이라 했다. 그는 본원사로 부터 조선 포교의 명을 받고 부산에 건너가서 포교를 하면서 그 절을 고덕사라 했다. 그런데 1591년(天正 19)에 조선출병이 결정나고, 히데요시의 명에 따라 귀국하였으며, 그 이듬해인 1592년에는 나고야 성에 있는 히데요시에게 불려가 조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리고 같은 해 중순하여 바다를 건너 사자의 영혼을 위로하다가 1596년에 일단 귀국을 하였으며, 1598년에 다시 부산으로 가려고 가라츠로 왔으나 도해가 금지되어 하는 수 없이 교토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 때 가라츠의 영주 테라사와의 간청으로 이 지역에 머물게 되었으며, 히데요시로부터 부산해라는 산호(山號)를 받았다고 한다.¹⁰⁾

이러한 내용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면 고덕사의 출발은 일찍이 자신의 불교를 조선에 포교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부산으로 건너가 포교활동을 벌인 불교사찰

10) 尹達世(2003: 164-165)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전쟁이라는 의미에서 보았을 때는 그렇지 못하다. 왜냐 하면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고자 조선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였을 때는 그들이 조선에서 활동하면서 모은 정보를 고스란히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쟁 시 그도 종군하여 전사자의 영혼을 위로하였다고 하나, 일본군이 전쟁 수행하는 동안 통역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첩자 노릇까지 하였을 것으로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가 히데요시로부터 받았다는 부산해라는 이름은 그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그의 활약은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군에 납치되어 일본으로 끌려가는 데도 일익을 담당하였을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해 고덕사는 출발부터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그 후 활동도 매우 정치적이었다. 가령 막말 때 주지 료관(了寬)은 근황파로 활약했고, 그의 장녀 오쿠무라 이오코(奥村五百子)는 애국부인회를 조직한 여성이다. 그 뿐만 아니라 1877년(明治10)에는 과거 고덕사가 부산에 포교한 인연이 있다고 하면서 조선 포교에 나서고 있다. 즉, 이 절은 본사인 본원사의 힘을 빌려 임란과 한일합병에도 일본의 침병노릇을 하였던 것이다.¹¹⁾ 이러한 사찰이 가라츠에 있는 것이다.

이와같이 이름만큼이나 조선과 관계가 깊은 가라츠의 부산해 고덕사에는 조선정부가 포로로 잡혀간 동포들에게 알리는 조선국예조위통유사(朝鮮國禮曹爲通諭事)가 보관되어 있었다. 크기는 세로 99센티, 가로 139센티의 폭으로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국 예조가 다음과 같이 통유한다.

나라가 불행히도 갑작스러운 병화를 입어 전국의 백성들은 도탄에 빠졌다. 가까스로 적이 휘두르는 칼에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도 모두 포로가 되어 어연 20여년이라 세월이 흘렀다. 그러한 가운데 부모의 나라를 생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는가. 어린아이를 등에 업고 큰길을 따라 고향으로 오는 자를 아직 보지 않았으나, 이는 완전히 매몰하여 세월이 흘러 자력으로 탈출할 방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 심정

11) 오쿠무라 엔신과 오쿠무라 이오코는 남매지간이다. 엔신은 1870년대부터 조선에 들어와 전국을 돌아다니며 절을 세우는 등 일본식 불교 포교에 열을 올렸으며, 그의 여동생 이오코는 일본의 폭력조직인 흑룡회(黑龍會)를 뒤에 업고 광주에 들어와 활동을 했으며, 그 후 그녀의 둘째 딸(光子)과 사위까지 광주에 와 정착하여 활동을 벌였다. 이들이 처음 정착하였을 때는 광주에 일본인들이 8명밖에 없었다. 그러나 1898년에는 100여명으로 늘어났고, 불로동과 황금동에 일본인들이 이용하는 음식점과 요정이 생겨났고, 이를 기점으로 광주 북쪽에는 일본식 부락인 「극락촌」을 만들어 집단으로 거주했다. 이들은 일제는 식민정책의 강화와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일환으로 광주에 정착한 어용상인과 민간인들이었다. 이러한 기반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부산해 고덕사의 오쿠무라 일가들이었던 것이다.

은 또한 가련할 뿐이다. 나라가 피로인을 쇠환함에 있어서 특히 관대한 조치를 베풀고자 한다. 정미년(1607)에는 (일본에 파견한) 사신이 피로인들을 데리고 왔다. 그들은 한결같이 죄를 사하고, 부역을 가진 자는 역을 면제하고, 공사의 천민이면 천민으로부터 해방하고, 완전히 다시 돌아가는 것을 도와 고향의 땅에 돌아가게끔 했다. 쇠환된 자는 모두가 친족들의 얼굴을 만나게 되었고, 다시 낙토의 백성이 되었다. 일본에 있는 자도 반드시 이 사실을 들어서 알고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일본은 우리나라의 적(토요토미씨)을 물리쳐 멸망시키고, 모든 전대의 소업을 새롭게 고치고, 서찰을 보내어 우호를 구하여 왔다. 나라는 백성들을 위해 사신을 보내어 일본에 남아있는 피로인들을 생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이때이다. 만일 일제히 (사신이 있는 곳) 나오면, 왕년에 나온 자의 예에 맞추어, 천민을 해방하고, 부역을 면제하고, 이전의 생활을 회복시키는 등 특전을 일일이 시행하고자 한다. 이 유문이 도달하면 (동포들) 서로 알려 유문의 통고에 따라 사신이 (조선국으로) 돌아갈 때 일시에 나오도록 하라. 의심하거나 무서워하여 우물쭈물 망설이는 일이 없이 이역의 혼귀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라. 분명히 시행하기 위해 이렇게 쓰노라. (이상의 글을) 오른쪽 하단(에 적은) 피로의 사민(士民)에게 부치노라. 만력 45년(1617) 5월 통유.¹²⁾

이상에서 보듯이 이는 1617년에 포로쇄환의 목적과 회답사를 겸한 정사 오윤겸 등이 본국으로 포로들을 데리고 간 상황을 말하고, 쇠환자에게는 관전을 베풀고, 유역자에게는 역을 면하게 하고, 공과 사적으로 천한 자는 천역을 면하는 등 충분히 애호무휼(愛護撫恤)을 베풀고, 각기 고향에서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일가친척들도 만나게 하여 낙토의 백성이 되게 한다고 하며, 새로이 본국으로 귀환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의심하지 말고 이역에서 귀신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루 빨리 같이 돌아가자는 것이다.¹³⁾ 즉, 일종의 호소문과 같은 것이었다. 그 호소문을 쓴 날짜는 1617년(萬曆 45) 5월로 되어있다. 즉, 1617년의 일이다. 포로들을 모집하는데 필요한 공고문은 대략 3가지 종류가 있었다. 하나는 조선예조가 발행한 문서이고, 둘은 조선 사절이 발급한 문서이며, 셋은 일본 막부의 숙로(宿老)가 쇼군이 피로인의 귀국을 허락했다는 내용을 조선 예조로 보낸 서계이었다. 이를 큰 길에다 붙여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게끔 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선으로 귀국하고 싶어 하면 반드시 귀국시키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이 명령에 따라 의문을 품지 말고 귀국해라. 약속한 배는 우리가 준비할 테니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일본어로

12) 이는 나고야성 박물관에 보관되어있는 것을 번역한 것이다.

13) 内藤雋輔(1976: 736-737)

된 문장도 첨부되는 경우도 있었다.¹⁴⁾

이상의 것은 조선예조가 발행한 서계이었다. 또 이러한 내용의 예조 유문이 가라츠 이외에 오우미(近江)의 히가시아사이군(東淺郡)과 이요(伊豫)의 마즈야마(松山)에서도 전래되는 것으로 보아 조선조정은 여러 장의 유고문을 작성하여 조선포로들이 있을 만한 곳에 배포하여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쇠환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 이후에도 가라츠 지역에 있던 조선인 포로들을 쇠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다. 1636년 조선통신사가 귀국길 도중에 역관 강우성으로 하여금 유고문을 가지고 가라츠로 파견하는 기사가 조선통신사의 기록¹⁵⁾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흔적이 가라츠의 부산해 고덕사에 남아있었던 것이다.

2) 토진마치의 조선인 기술집단

고덕사에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토진마치(唐人町)이라는 동네가 있었다. 현재 초다(町田) 5초메(丁目)라는 곳이 바로 그곳이다. 여기에서 당인이란 당나라 즉, 중국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인을 의미한다. 토미오카(富岡行昌)에 의하면 경장연간(慶長年間: 1596-1615)에 테라사와 시마모리(寺澤志摩守)가 조선에 출병하여 데리고 온 조선인을 살게 함으로써 생겨난 지명이라고 설명했다.¹⁶⁾

이들은 평범한 조선인이 아니었다. 『당진촌지(唐津村誌)』에 의하면 “도요 토미 히데요시가 정한에서 귀환할 때 이 지역으로 데리고 온 조선인을 이 땅에 거주케 하고 가신 오니히라(鬼平)로 하여금 감독케 하여 무명삼베를 짜는 일에 종사케 했다. 번정시대(藩政時代)에 이르러 크게 발전하여 강호저(江戸亭), 당진자마(唐津紫麻)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에도 중기의 가라츠번의 무사였던 木崎悠悠軒이 그린 『비전국물산회도(肥前國物産繪圖)』에는 그들의 작업현황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고 한다.¹⁷⁾ 그리고 『당진촌사(唐津村史)』에 “이곳에 거주하는 타키시다(滝下)라는 성씨는 이들 자손이다.”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이들 대부분이 일본식 이름으로 바꾸어 생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¹⁸⁾ 이처럼 토진마치에는 삼베를 짜는 기술자들이 있었다.

14) 米谷均(2007: 97-101)

15) 강홍중(1989: 265)

16) 富岡行昌(1983: 589)

17) 尹達世(2003: 165-166)

18) 服部英雄(2008: 7)

한편 사가지역의 명산물을 그린 『비전명산회도(肥前名産繪圖)』에도 당진 자마가 등장할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건너간 향의 제조에 대해서도 자세히 그리고 있다. 이 향의 제조법은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의 아버지인 고니시 류사(小西隆佐)가 조선에서 습득하여 일본으로 가지고 간 것이라고 한다.¹⁹⁾ 이런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왜냐하면 그 또한 조선과 중국과의 교역을 통하여 부를 축적한 호상이었으며, 특히 조선에서는 고려인삼과 벌꿀 등을 수입하고 있었다.²⁰⁾ 그러므로 누구보다도 조선에 관한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가라츠의 토진마치에는 조선에서 포로로 잡혀간 삼베 및 향 등을 만드는 특수기술자 집단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임란이후에도 돌아가지 않고 그곳에 남아있었다.

3. 사가의 조선포로

사가현의 중심지인 사가시에도 조선포로들이 많았다. 여기에 대한 관심은 일찍부터 있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30년대 이 지역의 도자기 연구가로 이름을 떨친 나카시마 히로키(中島浩氣)의 연구이다. 그의 대표적인 저서로는 『비전도자사고(肥前陶磁史考)』를 들 수가 있다. 이 책은 아직도 사가의 도자기 역사 연구에서는 기본도서로 통할 만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데, 그 내용 가운데 사가시의 토진마치(唐人町)라는 지명에 관해 간략히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 도공이 아닌 조선인 포로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 내용을 잠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토진마치(唐人町), 정한의 때에 우리 나베시마군에 따라온 한인들이 있었다. 사가성 아래에 온 자들이 180명이나 되며, 이때에 많은 한인들은 일본군을 위해 길 안내를 하거나, 혹은 식량을 보급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한 자들인데, 그렇다고 해서 모두 자진하여 온 자들은 아니었다. 대부분은 우리 군사들에게 위협을 받거나 어쩔 수 없이 따라온 자들일 것이다. 이 때 사가에 귀화한 한인들 가운데는 의도에 조예가 깊은 임일덕(林一德), 임영구(林榮久)의 부자가 있었고, 그의 자손은 하스이케번(蓮池藩)의 무사가 되어 타케시마(竹島)라 했다. 그리고 의약에 정통한 구야마 도세이(九山道清)가 있었는데, 그는 후에 쇼자에문(庄左衛門)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성 아래에서 한베이

19) 尹達世(2003: 166)

20) 李進熙(1993: 138)

사라사(半兵衛更紗)를 만들었다. 그 중에는 나오시게가 진성(晋城)으로부터 데리고 온 소년이 훗날 능서가가 된 홍호연(洪浩然)도 있었다. 그 밖에도 行李工, 飴工, 織工도 있었다.²¹⁾

이상의 내용을 보듯이 사가에는 임진과 정유왜란 때 포로가 된 조선인들 가운데는 도공뿐만 아니라 당시 첨단기술을 가진 자들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령 의술에는 임일덕과 임영구의 부자, 의약에는 구산도청, 서예가로는 홍호연이 있었으며, 그 밖에도 여행용구, 엿, 직물 등의 기술자들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나카시마는 임일덕과 임영구, 구야마 도세이, 홍호연이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 다만 임씨 부자와 구야마 도세이는 의학에 밝으며, 홍호연은 진성출신으로 능서가(서예가)였다고 짧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이에 우리는 이들이 어떤 인물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홍호연에 관한 자료가 최근에 그들의 자손에 의해 나고야 성 박물관으로 기증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그에 관해서는 좀 더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홍호연에 대해서는 기회를 달리하여 살펴보기로 하고, 그 밖의 인물들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1) 임영구의 일족

그럼 먼저 나카시마가 첫 번째로 언급한 임일덕과 임영구의 일족부터 알아보기로 하자. 그들의 시조인 임일덕에 대해서는 1847년(弘化 4) 2월에 그들의 자손인 林利兵衛昌彭이 편찬한 『임가계도(林家系圖)』에 비교적 자세하게 나와있다. 그것에 의하면 임일덕의 이름이 일덕제(一德齊)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원래의 그의 성씨는 진씨(秦氏)이며, 이름은 백(伯)이며, 자가 문열(文烈)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는 박학하며, 의술에 통달한 사람으로 노모치자와 함께 일본으로 갔으며, 1607년(慶長12) 8월에 사망한 것으로 되어있다.²²⁾

여기에서 보듯이 임일덕은 어떤 연유로 언제 어디에서 포로가 되어 일본으로 건너갔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본명은 진백이며, 그가 일본으로 갈 때 그는 이미 결혼하여 자식을 낳고, 노모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었던 가장이었으며, 또 직업은 한의사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로 인해 나베시마군이 그가 가지고 있던 의술의 활용도에 높이 평가하여 그를 가족들과 함께 일본으로 데리고 갔을 것

21) 中島浩氣(1985)

22) 大園弘(1977: 105)

으로 추정된다. 그에게는 아들 영구가 있었다. 그의 조선이름은 알 수 없으나 일본 이름은 林利兵衛真正이었다. 그는 사가의 영주 나오시게(直茂)가 죽자 불교에 귀의하여 출가했고, 그곳에서 얻어진 이름이 영구이었다.²³⁾

임영구도 그의 아버지 뒤를 이어 한의사를 했던 것 같다. 그의 의술이 인정 받았는지 나오시게와 가즈시게의 부자로부터 충애를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임영구는 1629년(관영 6) 5월에 사망하였으며, 그의 법명은 일산종무(一山宗無)이며, 그의 묘는 사가시 용태사(龍泰寺)에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²⁴⁾

임영구의 가족에 대한 정보는 야마모토 쓰네토모(山本常朝)가 쓴 『엽은(葉隱)』이 많이 제공해준다. 그것에 의하면 임영구는 영주의 주치의로서 활약을 했던 것 같다. 그에 대한 일화가 다음과 같이 전해진다. 즉, 나오시게가 귀에 흑이 생겼을 때 누군가가 거미줄로 묶어서 당기면 낫는다는 말을 듣고 그렇게 하였더니 그것이 낫기는 커녕 점점 커지고, 상처부위가 썩기 시작했다. 그러자 그는 고민이 되어 “나는 오늘날까지 남을 위해 무엇이든 했다.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잘못 듣고 나도 모르게 과실을 범하고 말았다. 썩어서 죽는다는 것은 자손들에게 수치를 주는 일이다. 이 상처가 더 심하게 되기 전에 죽고 싶다.”며 식음을 전폐하고 뒷전에 물러나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들인 가즈시게가 염려하여 “부모가 죽느냐 사느냐에 기로에 서있는데, 약이라도 지어 올리지 못했다는 것은 자식으로서 면목이 서지 않는다. 그러므로 반드시 약을 올리도록 하라.”고 가신들에게 거듭 부탁했다. 이 때 약을 올리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임영구이다. 그는 약에다가 약간의 죽에 섞어 넣어 올렸다. 그러자 나오시게는 버럭 화를 내며 “그대는 내가 아끼는 자로 율의자(律義者)라고 생각하여 의사의 역할을 맡겼는데, 이런 짓을 하다니, 이 약은 쌀을 넣은 것이지, 거짓 없이 솔직히 말하라.”고 다그치는 것이었다. 그러자 임영구는 울면서 “수일 식사도 하지 않아 체력이 떨어지신 것이 아닌가하고 염려되어 약에다 조금 쌀을 넣어 달여서 올린 것입니다. 체력이 회복되면 병도 나을 것이라 생각하여 쌀을 넣은 것입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²⁵⁾

여기에서 보듯이 임영구는 단식을 하고자 하는 나오시게의 뜻을 거슬러 약과 함께 곡기를 먹이려 하다가 혼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이를 통하여 우리는 그가 나오시게로부터 신임을 받고 있는 의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향토사가 오노미야 무츠지(小宮睦之)에 의하면 그의 봉록은 220석이나 되었다고 하니²⁶⁾, 그야말로 그에 대한 신임이 대단히 두터웠던 것 같다. 그리

23) 大園弘(1977: 105)

24) 栗原耕吾(2002: 41)

25) 山本常朝(1983: 245-246)

26) 小宮睦之(1996: 77)

고 『엽은』은 그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먼저 그의 장남인 염동(鹽童)의 기록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염동의 원래 이름은 임정지(林正之)이었고, 염동은 그의 아명이었다. 그에 대한 일화를 『엽은』에서는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즉, 그의 양부 이시이 누이도노스케(石井縫殿助)가 상부로부터 명을 받아 이시이 요자에몬이라는 사내를 심문할 것을 명받아 그의 부하인 히코에몬과 함께 그를 찾아갔다. 그 때 요자에몬은 술을 권하고 싶다고 하며, 부엌 쪽으로 가자 누이도노스케가 도망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뒤쫓아 가서 그를 포박하려고 실랑이를 벌였다. 그 바람에 화로가 뒤집어져 캄캄한 상황이 되었다. 그 때 마음이 다급해진 히코에몬이 허리에서 칼을 뽑아 뒤엎겨 있는 두 사람을 향해 다가가 위에 있는 주인을 요자에몬으로 잘못 인식하고, 그만 그의 허리를 찌르고 말았다. 그러자 누이도노스케는 “네가 찌른 사람은 바로 나다. 내가 누이도노스케란 말이다.”고 외치자 히코에몬은 깜짝 놀라 그 길로 도망치다가 끝내 자해를 하고 말았다. 누이도노스케는 부하에게 허리에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격투를 벌여 끝내 요자에몬의 목을 베고 자신도 죽어버린다.

이를 들은 영주는 누이도노스케의 아들인 염동 즉, 이시이 야시치자에몬에게 누이도노스케의 가독권을 승계하도록 했다. 그 때 염동의 나이 13살이었다. 이처럼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취한 자세는 그야말로 감동적이다. 이에 대해 『엽은』은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염동은 “말씀은 고맙지만 가독의 승계는 거절하옵니다. 저는 양자이며, 그 뒤에 쿠라보오시(倉法師)가 태어나 있습니다. 양부 누이도노스케도 내심으로는 쿠라보오시가 가독을 잇게 하고 싶을 것입니다. 이처럼 실자도 있기 때문에 쿠라보오시에게 가독을 내려주십시오. 저는 무급의 자로서 봉사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라고 하는 것이었다. 이에 영주인 가츠시게는 “어린 녀석이면서도 참으로 신묘한 말을 하는구나. 그의 말에도 일리가 있다. 그러면 쿠라보오시에게는 600석, 염동에게는 100석을 주도록 하여라.”고 했다. 그러자 염동은 다시 “거듭 거듭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누이도노스케에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독이 깎여지는 일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다만 무급으로 봉공하고자 합니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가츠시게는 쿠라보오시에게 누이도노스케의 가독을 계승시켰고, 염동에게는 가게 가운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명에 따라 70석이 부여되었다고 한다.²⁷⁾

여기에서 보듯이 그는 임영구의 장남이면서도 일찍부터 이시이 집안에 양자

27) 山本常朝(1983: 62-63)

로 가 있었다. 보통 일본에서는 양자를 아들이 없고 딸만 있었을 때 대를 잇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딸과 결혼시킨 사위를 양자로 받아들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의 양자는 너무나도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는 어쩌면 이시이가 그의 범상치 않음에 감탄하여 그를 자신의 양자로 삼았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그는 양부가 사고로 죽고 그의 가독권을 계승시키려는 영주에게 논리적인 근거를 내세워 용감하게 거절하는 소년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죽은 양부와 살아있는 양제와의 의리를 지켰던 것이다.

그는 또 성장하여 어른이 되었을 때 이시이 야시치자에몬이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엽은』은 그 후의 활동에도 관심이 많아 그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다음과 같이 전쟁에서 무훈의 성과를 올리는 기록이다.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츠시게가 아리마에 도착하였을 때 야시치자에몬은 특별한 역할이 없었기 때문에 多久美作에게 가로(家老)의 보좌를 맡겨라고 하였다. 27일 原城을 공격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중야병우위문을 향해 상사의 명령이므로 빨리 후퇴하라고 전했다. 그러나 야시치자에몬과 이시이 텐에몬(石井傳右衛門)은 “榊原殿 父子가 성으로 들어가려는 모양이다. 그 때 우리들이 제일 빨리 들어가자 기다리고 있다고 하며 후퇴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오후 4시경에 성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을 조사할 때 논쟁이 있었다. 이에 나베시마 모토시게(鍋島元茂)는 가츠시게(勝武)에게 “가장 먼저 들어간 자는 막부로 불러 조사하면 알겠지만 그 때 훌륭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자는 야시치자에몬밖에 없을 것이다. 한치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 하여야 나와 부하들이 납득할 것입니다. 야시치자에몬으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가츠시게는 “이러한 일에 대한 논쟁은 자주 있는 일이다. 나에게 좋은 생각이 있다. 내가 검분하여 결정할 터이니, 다른 증거는 필요가 없다. 진홍색의 태양이 그려진 黑羅紗의 陣羽織을 입은 자가 제일 먼저 들어간 자이다.”고 하였다. 그 때 야시치자에몬은 “하필이면 이때에 나는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누가 사람을 보내어 그 뜻을 알아오게 해 달라.”라고 했다. 그리하여 이 사실을 안 야시치자에몬의 집에서 곧 “이 羽織이다.” 하였다. 그리하여 야시치자에몬과 텐에몬이 제일 먼저 들어간 자로 인정되었다.²⁸⁾

여기에서 보듯이 그는 이시이 집안으로 양자로 들어가 그의 일족 이시이 텐에몬과 함께 전쟁에 출전하여 상대의 성을 함락할 때 제일 먼저 그 성 안으로

28) 山本常朝(1983: 158-159)

침입해 들어가 맹렬히 싸운 무사이었다. 그 결과 그는 군공을 인정받아 사가번으로부터 250석을 받는 무사가 되었다. 이처럼 임영구의 일족은 비록 조선인이었지만 사가번에서 귀감이 될 만한 무사가 되었던 것이다. 그는 1660년(萬治3)에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²⁹⁾

한편 『엽은』에 의하면 임영구의 차남인 하야시 교자에몬은 영주인 나베시마 타다나오(鍋島忠直)가 1635년(寬永12) 1월 28일에 죽자 그 뒤를 따라 할복순사를 한 사람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에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타다나오(忠直)에 순사한 하야시 교자에몬은 타다나오가 살아있을 때 그 측근에 사람이 없어서 타다나오로부터 총애를 받은 자이다. 충직의 측근에서 섬기기 위해 에도(江戶)로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을 때 타다나오의 서거 소식이 있었다. 교자에몬은 하루도 붕공하지 않았지만, 수백명의 가신 중에서 영주의 총애를 받았다는 것은 과분할 정도의 영광이다 하며, 야마시로(忠直의 아우)가 말렸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할복했다. 교자에몬을 총애하신 이유는 가츠시게(勝武)로부터 “누구라도 좋으니 데리고 있고 싶은 부하가 있으면 한번 추천해보라.”는 말을 듣고, 타다나오는 “하야시 교자에몬이라는 자가 작년 사자로 와서 얼굴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는 잘 아는 자가 없습니다.”고 하였기 때문에 교자에몬은 타다나오의 측근에서 보필하도록 명받았던 것이다. 일설에 임영구(교자에몬의 부친)가 죽었을 때 교자에몬에게 “나는 가츠시게를 위해 순사할 생각이었지만 먼저 죽는 것이 대단히 유감이다.”라고 했다. 이 말을 들은 교자에몬은 “그 일은 염려마십시오. 나의 명예를 걸고 나의 목숨은 주군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영구는 기뻐하며 죽었다. 교자에몬은 자신이 병약하여 단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 타다나오가 죽었기 때문에 바로 이때라고 생각하고 순사한 것이다.³⁰⁾

여기에서 보듯이 그의 아버지 임영구는 아들에게 남겼던 말처럼 자신을 거두어준 가츠시게가 죽으면 그를 따라 죽으려고 했었던 모양이다. 그렇지만 이를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하였고, 그의 아들 교자에몬에게 주군의 죽음에 순사하도록 부탁하였다. 이를 새겨들은 교자에몬은 자신의 주군인 타다나오가 죽었을 때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할복하여 목숨을 끊었다. 그 때가 1635년(寬永12) 4월 9일이었다. 그의 묘는 부친과 같이 사가시의 용태사에 있으며, 법명은 효안수충(孝安殊忠)이었다.

29) 栗原耕吾(2002: 41)

30) 山本常朝(1983: 306-307)

『엽은』의 진수는 무사의 삶과 죽음을 깊게 추구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엽은』은 그들을 주목한 것은 비록 조선인이지만 임영구의 부자가 취한 자세는 충과 의리에서 나온 것이며, 이것은 바로 사가의 무사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것으로 높게 평가한 결과일 것이다.

『엽은』은 삼남 후지타케겐우에몬(藤竹源右衛門)에 대해서도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코시로(小城)의 나베시마가(鍋島家)를 섬기는 무사가 되었고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임일덕의 아들 임영구는 사가에서 한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아들 3명을 모두 무사로서 길렀으며, 이들 모두 사가번에서 모범이 되는 훌륭한 무사로서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나염기술을 개발한 이구산

사가시의 경원사에는 조선인 무덤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이종환과 구야마 도세이(九山道清)이다. 전자는 임란 이전에 일본으로 들어간 사람이고, 더군다나 일전에 그에 대해 소개³¹⁾한 바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임란포로에 맞추어 임란을 계기로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 후자인 구야마 도세이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구야마 도세이는 우리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었다. 임란 400주년을 맞이하였던 1992년에 역사학자 홍종필이 그해 6월에 동아일보에 임란을 기획한 글에서 그에 대해 잠시 소개되어 우리에게 알려진 적이 있다. 그것에 의하면 그는 의사로서 명약개발과 비단기술을 개발하여 사가의 산업발전에 공헌한 인물이라 했다.³²⁾ 그 후 그의 존재는 한동안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다. 그러다가 2003년 일문학자 최관이 임진왜란과 관련된 연구저서에서 구야마 도세이는 제약기술과 견사 제조법을 전해준 인물로 잠깐 언급³³⁾되었을 뿐 오늘에 이르기 까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는 없었다. 홍종필과 최관의 글을 통해 그의 기본적인 신변상황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만 그가 사가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더 알고 싶은 우리들에게는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사가현립 박물관에서 그의 집안의 가계를 적은 「강두가계도(江頭家系圖)」가 발견이 되었다. 그것에 의하면 1598년(慶長 3)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가의 영주 나베시마 나오시게가 13명 가량의 조선인을 데리고 일본으로 돌아갔는데, 그 중의 한 명이 구야마 도세이었다. 그 때 나이가 33세이었으며, 그는 자신과 같이 납치당한 사람들과 함께 토진마치(唐人町)에 살며, 의술을 배

31) 노성환(2008: 277-281)

32) 홍종필(1992. 6. 2)

33) 최관(2003: 31)

우고 ‘환산선(丸散仙)’이라는 환약을 제조하여, 그것에 대한 제조와 판매의 특허를 얻었다. 그리고 이름을 九山庄左衛門이라고 했다.³⁴⁾ 그리고 그는 오가와 후지사에몬(小川藤佐衛門)의 딸과 결혼하여 그 사이에서 아들 시치로자에몬(七郎左衛門)을 두었다. 그리고 그는 1647년(正保4) 9월 23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었다.

테라사키(寺崎宗俊)씨에 의하면 그의 본명이 이구산(李九山)이며, 정유재란 때 나베시마군에게 포로가 되어 33세의 나이로 일본으로 갔으며, 조선에서의 직업은 도공 또는 한의사이었다고 알려져 있다.³⁵⁾ 그리고 향토사학자인 오조노 히로시(大園弘)씨에 의하면 그의 후손들이 1875년(명치 8)에 기응환(寄応丸), 고약(膏藥), 신효환(神效丸), 지황환(地黃丸) 등 환약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오늘날까지도 그의 후손들은 그가 전한 비법의 환약제조의 기술이 전수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추정하기도 하였다.³⁶⁾

이구산은 일본에 한방의 의학만 전한 것이 아니었다. 염직의 기술도 개발하여 일본인들에게 전수하고 있다. 염직에게는 대개 식물성의 재료를 이용한 염료염직(染料染織)과 광물성의 재료를 이용한 안료염직(顔料染織)으로 나누어진 다. 한의사였던 그가 염직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한방의 재료가 되는 약초와 염료의 재료가 되는 식물이 때로는 같은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가 본격적으로 염직의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완성한 것이 일본에서도 유명한 「나베시마 사라사(鍋島更紗)」라는 화려한 문양의 염직이다. 그리하여 사가현립박물관(佐賀縣立博物館)에서 보관하고 있는 『사라사비전서(更紗秘傳書)』에는 “원래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300여년 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정벌할 때 히젠(肥前)의 영주 나베시마 나오시게에게 포로가 된 고려인 구야마 도세이(이구산)가 가지고 온 것”이라고 설명되어있다 한다.³⁷⁾

이렇게 그가 개발한 사라사를 도세이 사라사(道清更紗) 또는 고려 사라사(高麗更紗)라 했으며,³⁸⁾ 그 후에는 한베이 사라사(半兵衛更紗)라고도 불리웠다. 그 이유는 후술하겠지만 4대에 이르러 남자아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죽는 바람에 홀로 된 딸이 예구치 집안으로 시집가게 됨에 따라 그들의 기술이 모두 예구치 집안으로 전해졌고, 이들이 사라사를 한베이라라는 이름을 사용한 데서 생겨났기 때문이었다.³⁹⁾

34) 阿部桂司(1979: 199)

35) 寺崎宗俊(1993: 222)

36) 大園弘(1977: 103)

37) 尹達世(2003: 177)

38) 鈴木滋人(2002 :31)

‘사라사’라고 하는 것은 목면천에다 화려한 문양을 인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은 인쇄기술의 발전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고급의 기술이다. “사라사”는 너무나 정교한 기술을 요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1개월에 두 필 정도밖에 제작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나베시마 사라사」는 영주 또는 귀족들에게 주로 애용된 것이라서 일반적인 시장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당시의 「나베시마 사라사」라는 염직의 천은 박물관 이외의 다른 곳에서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렵다. 이처럼 이구산은 조선에서 보아 온 조선의 활자 인쇄술을 기초로 기술을 개발하였음을 짐작할 수가 있다.

이구산이 개발한 나베시마 사라사는 명치기(明治期:1868-1911)에 접어들어 번의 정치체도가 폐지가 됨과 동시에 쇠퇴의 길을 걷게 되더니, 드디어 대가 끊어지고 말았지만, 1960년대부터 염직공예가 스즈다 테이지(鈴田照次)씨에 의해 복원되었다.⁴⁰⁾

그는 또 광물에 대한 지식도 풍부했다. 그리하여 자신이 개발한 염직의 문양을 도자기에도 그려 넣고 싶어 했다. 이 기술도 그에 의해 개발된다. 이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것이 사가의 특유한 양식의 「이로나베시마사라사문(色鍋島更紗文)」이라 불리는 도자기이다.

이같이 사가의 산업기술의 발달에 크게 기여한 조선인 구야마 도세이의 집안이 2대째 시치로자에몬에 이르면 그들은 성씨를 자신의 어머니의 성인 ‘오가와(小川)’로 바꾸었다. 그리고 시치로자에몬은 히데시마 켄우에몬(秀島源右衛門)의 여동생과 결혼하여 두 명의 아들을 두었으나, 장남에 대해서는 가계도에 이름도 적혀있지 않아 아마도 일찍 죽었던 것 같다. 그리하여 차남인 도쿠우에몬(徳右衛門)이 가계를 계승하고, 에구치 키치우에몬(江口吉右衛門)의 여동생을 아내로 맞아들인다. 그 사이에서 2남 1녀가 태어나나, 장남 지베이(次兵衛)와 차남 히사자에몬(久左衛門)이 결혼도 하기 전에 사망하는 바람에 막내딸만 남게 된다. 그녀가 외삼촌 에구치 키치우에몬의 아들 고우에몬(五右衛門)과 결혼하여 감에 따라 이구산의 남계혈통은 끝을 맺게 된다.⁴¹⁾

이와같이 오가와 집안의 가계는 끝이 났지만 도쿠우에몬의 딸이 외갓집인 에구치 집안으로 시집가면서 이구산이 조선에서 가지고 간 약사여래존상과 그의 집안에서 전해져 내려가는 제약비법과 사라사 염직기술의 비법을 모두 남편인 고우에몬에게 전하였다고 한다. 이로 말미암아 이구산이 개발한 여러 가지 비법은 외손 에구치 집안에 전해지게 된 것이다. 그러다가 에구치 집안의 9대 손인 베에몬(兵右衛門)이 자신의 처의 성인 ‘에토(江頭)’로 바꾸어 분가를

39) 尹達世(2003: 177)

40) 尹達世(2003: 178)

41) 佐賀県立博物館編(1977: 116)

하여 나갔다.

오조노씨에 의하면 구야마의 후손이 현재 도쿄에 살고 있으며, 그의 이름은 에토 타미오(江頭民雄)라 했다. 에토 타미오씨는 자신의 집안에서는 이구산이 개발한 신호환을 근대에 까지 제조하여 판매하였으며 구야마 도세이가 조선에서 가지고 온 약사여래존상도 지금까지 자신의 집에서 정중하게 모시고 있다고 한다.⁴²⁾ 이와 같이 이구산에서 시작한 구야마씨는 시조 구야마 도세이가 죽고 나서 집안의 성씨가 오가와로 바뀌어 내려오다가 남자의 대가 끊어지자 외손들에게 그의 비법이 전해졌고, 외손들은 에구치를 거쳐 에토로 변하면서 그의 외조부가 전해준 비법과 유물을 근래에게 까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다.

3) 정진(淨珍)과 마키츄자에몬(榎忠左衛門)

이석문(李石門)의 『부상록(扶桑錄)』에 의하면 조선포로들의 태반이 노복이라고 했을 만큼 그들의 신분은 낮았다. 임영구, 이구산과 같이 어느 정도 사회적 신분이 보장된 사람은 극히 적었다. 조선인포로들 가운데는 전쟁터에서 무사에게 붙잡혀 일본으로 연행되어 그들의 부하가 되는 자들도 있었다. 이들 가운데 자신의 주인이 영주가 죽어서 순사하게 되면 그들도 주인을 따라 죽는 자들도 있었다. 즉, 순사자의 순사자가 나오는 것이다. 1657년 3월 24일 사가번의 영주 나베시마 가츠시게(鍋島勝茂)가 죽었을 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그들 가운데는 정진(淨珍)을 비롯한 3명의 조선인이 있었다. 정진은 나베시마의 가신인 오노요시베이(大野吉兵衛)를 섬겼던 것 같다. 오노가 주군을 따라 할복자결하는 순사를 하자, 그는 아내와 함께 순사했다. 그리고 타자에몬(太左衛門)이라는 일본식 이름을 가진 조선인도 아내와도 같이 자결했다.⁴³⁾ 이들의 신분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었던 탓에 그들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 그들이 일본에서 어떠한 생활을 하였으며, 또 그들의 후손이 훗날 어떻게 되었는지 자세히 알 길이 없다.

한편 사가에는 어린나이의 포로가 되어 사가에서 살았던 조선소년의 이야기가 있다. 『엽은(葉隱)』에 의하면 그는 일본군에 의해 코가 잘릴 위험에 처해있었을 때 山本重澄(中野神右衛門清明)이 이를 보고 가엽게 여겨 자신의 아들 千松丸과 같은 또래라고 하며 그를 귀국 시에 사가로 데리고 갔다. 그 후 그를 마키츄자엔몬(榎忠左衛門)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아시가루(足輕)라는 하급 군졸로서 이용했다.

42) 大園弘(1977: 103)

43) 服部英雄(2008: 6), 그러나 타자에몬의 아내는 일본인인지 조선인인지 정확하지 않다.

원래 사가번에는 아시가루가 없었다. 사가번이 아시가루라는 하급 무사제도를 설치하는 것은 임란과 정유재란 때의 일이다. 그들이 히데요시가 일으킨 조선전쟁에 참가해 있었을 때 다른 지역의 영주들에게는 아시가루들이 있었고, 이들의 활약이 만만치 않다는 사실을 알고 전쟁에 함께 참가한 차남이하의 자식들을 아시가루로 삼은 것이 사가번의 아시가루 제도의 출발이었다.⁴⁴⁾ 즉, 아시가루란 계급 상으로는 높지도 낮으면서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하사관급의 무사이었던 것이다.

마키츄자엔몬도 결혼하여 나가우에몬(長右衛門)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는 사가번의 직참(直參)이 되었다. 하사관급에서 장교급인 사무라이가 된 것이다. 그러자 그의 이름도 히데시마나가우에몬(秀島長右衛門)이라 고쳤다. 그리고 그에게는 히데시마 고우에몬(秀島五右衛門)이라는 아들이 있었다.⁴⁵⁾

이처럼 사가현에 있는 조선포로들 가운데는 나이 어린 소년포로들도 있었다. 여기에 대해 나카자토 노리모토씨(中里紀元)는 이들은 자식(친지)들에게 선물용으로 가져갔다고 해석했다.⁴⁶⁾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들은 같이 놀아주는 노리개이자 몸종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들의 출발이 그렇다고 하지만, 이들은 능력을 인정받아 처음에는 신우에몬의 사병인 아시가루가 되었고, 또 노력하여 번의 정식 사무라이가 되어 자식들에게 그 직을 물려줄 수가 있었다. 즉, 노예출신으로서 일본의 관료가 된 것이었다. 당시 일본에서는 이러한 노력에 따라 출세의 길은 열려 있었던 것이다.

4. 타쿠의 소년포로

사가현의 중앙부에 위치한 타쿠시(多久市)에도 마키츄자엔몬과 같은 소년포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그는 불행히도 일찍 죽어서 지역의 저주신이 되었다. 그를 모신 사당은 오쓰카씨(大塚氏) 묘역에 있으며, 사람들은 그를 고라이콘겐(高麗權現)이라 했다. 그를 신으로 모신 사당이 오쓰카씨의 묘역의 일각에 있다. 그에 관한 전설이 한문설화집인 『금제해(今齊諧)』(卷4 第33話)에 적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소개된 적이 없기 때문에 전문을 번역하여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44) 山本常朝(1983: 197)

45) 山本常朝(1983: 161)

46) 中里紀元(2001: 233)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에 침공하였을 때 지금 초대 사가번주인 나오시게 공은 가끔 전공을 올렸다. 그 때 가로인 타쿠타이유(多久太夫)도 여기에 종군했다. 그 다구씨의 가신이었던 소에시마(副島) 모씨가 조선의 소년을 잡아서 일본으로 데리고 갔다. 소년은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똑똑하고 영리하며, 게다가 학문을 좋아하여 문학에도 뛰어나서 많은 기예들을 익히고 있었다. 이에 소에시마 모씨는 기뻐하여 이 소년을 아끼며 키우더니 이윽고 자기의 자식으로 삼았다. 소년은 어느 정도 나이를 먹자 자신의 재능을 뽐내고 거만해졌으며,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여 언제나 남들을 무시했다. 주위의 사람들은 이를 막으려고 이 소년을 멀리했다. 그러자 소년은 스스로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알고 항상 만족하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나쁨과 흥폭함은 멈추지 않았고, 끝내는 재앙이 자신의 몸에 닥치는 것이 명확했다. 어느 날 밤 잘 자고 있었을 때 그의 몸이 뽕뽕 뭉여 매달려지고 칼에 찔려 죽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고 난 후 그 소년은 원귀가 되어 원한을 품고 3대에 걸쳐 소에시마의 당주(當主)를 일찍 죽게 만들었고, 4대째 가문이 이어지는 어느 날 낮에 도깨비가 바깥에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이를 보니 그 도깨비는 다름 아닌 죽은 조선의 소년이었다. 흐트러진 머리카락은 등줄기까지 내려져 있고, 얼굴은 새파랗고, 몸에는 죽었을 때의 옷을 그대로 입고 있었으며, 피는 여전히 뚝뚝 땅에 떨어지고 있었다. 주인과 마주하더니 말하기를 “나는 너의 조상에게 살해당한 조선의 소년이다. 나의 원한은 억울한 죄가 언제까지 사라지지 않는 점에 있다. 이미 너의 조부 등 3명을 죽였다. 이처럼 사람을 죽여보아도 기분이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믿지않고 여우나 너구리, 혹은 百鬼가 저지른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조부 등 3명을 빨리 죽게 하는 것만으로는 나의 마음을 천하에 알리는 것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내일 내가 한번 더 이곳에 오고자 하니 너는 반드시 제물로 한명의 소년을 골라 놓아라. 그러면 내가 그 아이에게 빙의하여 마음에 담아있는 분한 마음을 털어놓겠다.”하며 이내 사라지고 말았다. 이를 들은 집 안 사람들은 크게 놀라고 그 귀신의 뜻을 거슬려 화를 입는 것을 두려워하여 다음날 아침 모든 친척들이 모여 마을의 아이들 가운데 가장 어리석은 아이 한명을 골라 제물로 삼았다. 그리고 모두가 그 아이를 둘러싸고 보고 있었더니 갑자기 그 아이의 다정한 눈빛이 사납게 바뀌더니 흥분된 상태로 일일이 오랫동안 품어온 원한을 말하기 시작했다. 그 변설은 마치 흐르는 강물처럼 유창하여 그 상태는 도저히 어제의 시골 소년이라고 볼 수가 없었다. 잠시 후 동자는 울부짖으며 자신의 노여움을 말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들어올리고 “나의 원한은 쌓일대로 쌓이고, 분노는 점점 깊어져 입으로는 도저히 다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즉시 붓과 벼루를 가지고 오라.”고 했다. 집 식구들은 공포에 떨면서 명령에 따랐다. 동자는 붓을 잡는

순간 즉시 물이 흐르는 것처럼 엄청난 문자를 빠르게 적더니 그것을 사람들에게 던졌다. 사람들이 이를 주워보니, 그 필적은 약동하고, 말은 비장감에 차 있으며, 모든 것이 원한을 호소하고 자신의 무실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 내용의 요지는 다음과 같았다. 나는 고원한 삼한의 누대의 거가에서 태어났으나, 포박되어 여기 일본에 왔다. 원래부터 출세를 하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으며, 민간에서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다. 왜냐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기 때문이다. 나는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중요하는 것은 한번은 나를 기르며 자식으로 삼으면서도, 이번에는 거짓으로 계락을 꾸며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 거칠고 비정한 짓은 도저히 인간다운 마음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여 개나 돼지와 같은 짐승들이 할 짓이다. 나를 죽이려고 하였다면 어찌하여 나에게 칼을 잡을 기회를 한 번도 주지 않았단 말인가. 내가 이 사태를 충분히 이해하고 괜찮았다고 칭찬받을 훌륭한 죽음을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이 때문에 험악하고 악의로 가득 찬 함정을 파놓고 또 거짓으로 가득 찬 계락을 꾸미고는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은 용서할 수 없다. 나는 나의 진심을 천제에게 호소하고, 이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너의 가족 3대를 모두 죽일 수 있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아직 나의 분노가 충분히 풀리지 않는다. 몇월 몇일 몇시 나는 반드시 주인의 목숨을 끊고 소에시마의 자손에게 오랫동안 한줌의 살점을 남기지 않도록 하려고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문장을 다 읽고 나니, 그 동자는 원래 어리석은 소년으로 돌아왔으며, 여태까지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 집의 식구들은 공포에 떨며 온갖 수단을 다하였지만 그 귀신은 나가지 않았다. 동자가 말한 날짜가 오자 즉시 주인은 죽고, 그 자식, 그리고 손자들도 오래 살지 못했다. 따라서 양자를 맞아들여 대를 이어 소에시마 가문을 단절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하였지만 끝내 단절되고 말았으며, 그 후 시간이 많이 흘러 버렸다. 그 동자가 처음으로 호소하였을 때의 문장은 오랫동안 소에시마 집안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촌노들 가운데 이를 본 사람이 있다고 하나, 최근 화재로 말미암아 소실되어 버렸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타쿠의 사람 쿠사바 아키라(草場鞆)가 나에게 해준 것이다. 이를 내가 정리한 것은 문화 8년(1811) 초 사일(巳日)의 이틀 뒤이다.⁴⁷⁾

이 문장에서 보듯이 임란 때 소년으로 잡혀와 일본인 집안에서 자라다가 양부모에게 살해당한 조선 소년의 슬픈 이야기이다. 사람들은 그의 살해를 정당화하기 위해 그가 영특하지만 거만하고 흉폭한 행동을 일삼았다고 했다. 그러나 이것이 그를 죽일 만큼 위협적인 행위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다른 이유가

47) 志波深雪(2002: 25-26) 재인용

있을 것이다. 더군다나 그가 어리석은 일본 소년에게 병의하여 말하기를 출세하고자 하는 욕구도 없으며, 다만 평범하게 보통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다고 했다. 그리고 자신이 조선의 포로출신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그가 원하는 품었던 것은 한 때는 애지중지하며 자식으로 키우다가 마음을 바꾸어 자신을 죽이는 몰인간적인 행위이었다. 이러한 것을 그는 개, 돼지와 같은 짐승들이나 하는 것이며, 도저히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라 하며 저주의 귀신이 되어 소에시마의 집안의 씨앗을 말려버린 것이었다. 이처럼 그의 죽음은 그의 교만하고 흉폭한 행위로 말미암은 것으로 보기 힘든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죽음은 영특함 때문에 생겨났을 가능성이 높다. 비상한 머리와 뛰어난 재주를 가진 그는 조선을 침략하여 많은 사람들을 살해한 일본인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느끼게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길러준 양부모로부터 살해당하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실제로 그의 사당을 지은 오쓰카씨 집안에 전해지는 구비전승에는 그의 교만함에 대한 이야기는 없고, 그의 죽음은 그가 지니고 있는 비상한 영리함 때문에 이를 두려워한 당시 권력자들이 장래의 화근을 없애기 위해 살해하였다고 한다.⁴⁸⁾ 이처럼 그의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은 오쓰카씨 집안의 전승처럼 그의 뛰어난 재능에서 기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이처럼 사가현 타쿠에서는 비극적인 삶을 살다간 조선 소년의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의 사당이 오쓰카씨 묘역에 있게 된 이유는 그 소년의 저주 때문인지 수대에 걸쳐 오쓰카씨 집안에서는 남자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하여 그 소년을 위해서 사당을 짓고 고려콘젠이라는 신으로 모시기 시작했다고 한다. 여기에 효과가 있었는지 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으며, 근년에는 그 아들이 공부를 잘하여 도쿄대학에 입학하였다고도 전해진다. 이러한 신앙이 널리 퍼지면 그에 대한 신격은 원래와 같이 저주의 신이 아니라, 자식을 점지해주고, 또 그 자식으로 하여금 공부 잘하게 해주는 신으로 변질되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5. 마무리

지금까지 임란과 정유왜란을 계기로 일본군에게 포로가 되어 바다를 건너 사가현에 정착한 조선인들 가운데 도공이 아닌 사람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들은 주로 가라츠와 사가 그리고 타케오라는 3지역에 많이 살고 있었다.

48) 志波深雪(2002: 24)

이 중 가라츠는 조선과의 통교에서 창구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인 포로들이 많이 살았던 지역이었다. 그리하여 조선조정에서는 포로들을 쇠환하기 위한 통고문을 가라츠로 보냈다. 그러한 증거로 남아있는 것이 고덕사에 보관되어 있었던 조선국예조통유사(朝鮮國禮曹通諭事)이다. 이러한 사료에서 보듯이 조선정부는 일본에 남아있는 임란포로들을 가능하면 많이 쇠환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던 것 같다. 그에 따라 귀국하는 다수의 사람들도 있었으며, 그 중에는 일본에 남아 생계를 영위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이들 가운데 가라츠에 남은 사람들은 대체로 양반출신이 아니었지만, 목면과 향을 만드는 특수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한마을을 이루고 살았으며, 일본인들은 이 마을을 외국인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토진마치라고 불렀다. 이들은 가라츠 산업에 일익을 담당하였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들에 관한 기록이 없어 구체적인 그들의 이름과 후손들의 활약상까지 파악하기는 무척 어렵다.

그러나 이에 비해 사가현의 중심지인 사가시에는 지식계층의 포로들도 많았다. 그런 특성 때문에 그들에 관한 기록들이 비교적 부분적이거나 남아있어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임영구, 이구산의 일족 등을 들 수가 있을 것이다. 임영구는 영주로부터 신임을 얻었던 의사이었다. 그리고 영주가 죽으면 순사하고자 했던 무사이기도 했다. 그러한 임영구이었기에 그의 후손들은 주군의 죽음에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은 순사자로, 또 전쟁에서는 선봉장에 서서 싸우는 훌륭한 무사의 집안으로서 성장하고 있었다. 이에 비해 이구산은 제약과 나염기술을 개발하여 지역산업에 큰 공헌을 했다. 그리고 나베시마 카츠시게가 죽었을 때 그를 따라 할복 순사하는 무사들이 속출할 때, 그 무사의 부하로 있던 정진과 타자에몬의 부부처럼 자신의 주인을 따라 목숨을 끊는 조선인들도 있었다. 또 사가에는 마키츄자에몬이라는 소년포로를 위시하여 나카시마가 行李工, 飴工, 織工이라고만 언급한 수많은 무명의 조선인 기술자들도 있었음을 빠뜨릴 수 없다.

한편 타쿠에는 양부모에게 살해당하는 소년포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재능 있는 어린 조선소년포로들이 있으면 그 재능을 높이 사서 양자로 삼는 경우도 있었으며, 또 이 지재능이 자신들이 위협이 되면 비록 양자라 할지라도 여차 없이 제거해버리는 인간의 냉혹함을 느낄 수가 있다. 그로 말미암아 소년포로는 원한을 품고 죽어서 저주의 신이 되었고, 또 오늘날에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그 성격을 학문의 신으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포로들 가운데 불행한 죽음을 당하여 일본에서 신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임란을 흔히 도자기전쟁, 서적전쟁, 활자전쟁, 포로전쟁이라고 일컫는 것은

그만큼 전쟁을 통해 많은 한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전래되었다. 이로 말미암아 일본은 이를 빗대어 일본의 저명한 저술가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1863-1957)는 그의 저서 『근세일본국민사(近世日本國民史)』에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으킨 조선침략전쟁은 「일본의 사치스러운 해외유학이었다」고 까지 표현한 적이 있다. 그만큼 일본의 조선침략이 일본의 문화와 사상의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사가현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들이 잡아간 조선인 포로들은 사가현에서 의술, 의약, 서예 및 생활용품의 제작기술 등 많은 부분에서 눈부신 활약과 공적을 남긴 사람들이다. 이를 두고 도쿠토미 소호 식으로 표현하자면 일본은 조선에서 사치스러운 유학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들의 스승마저 강제로 납치하여 자신의 땅에서 학업을 계속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参考文献】

- 강홍중(1989) 「동사록」 『고전국역총서 해행총재(3)』, 민족문화추진회, p.265
- 김옥희(1985) 「임란때 납치된 조선여성들의 일본에서의 순교와 신앙생활」 『사학연구(36)』 pp.117-133
- 김태준(1977) 「고려의 자손들과 임란의 도자문화」 『임진난과 조선문화의 동점』, 한국연구원, pp.51-119
- 노성환(2008) 「일본 사가시에 남은 임진과 정유왜란」 『일어교육(46)』, 한국일본어교육학회. pp.277-281
- 服部英雄(2008) 「前近代日本のチャイナタウン. コリアンタウン」 『바다와 인문학의 만남, 동북아세아, 동아시아일본학회 연합국제학술대회프로시딩』 동북아세아문화학회. pp.5-6
- 민덕기(2005) 「임진왜란 중의 납치된 조선인 문제」 『임진왜란과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p.395
- 신일철(1986) 「일본 도자기의 시조」 『일본문화의 뿌리 한국』 <구원회편> 상서각. pp.26-36
- 최관(2003) 『일본과 임진왜란』, 고려대학교 출판부. p.31
- 홍중필(1992. 6. 19) 「제약기술-의약의 두 명인」 『임란 400년 한민족혼 일본서 숨는다』

- 米谷均(2007) 「사로잡힌 조선인들 -진후 조선인 포로 송환에 대하여-」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정두희, 이경순 엮음>, 휴머니스트, pp97-101
- 服部英雄(2008) 「前近代日本のチャイナタウン. コリアンタウン」 『바다와 인문학의 만남, 동북아세아, 동아시아일본학회 연합 국제학술대회 프로시딩』 동북아세아문화학회. p7
- 阿部桂司(1979) 「更紗と李九山」 『季刊 三千里(17)』, 三千里社. p199
- 李進熙(1993) 「小西行長」 『文祿, 慶長の役』, 学研. p.138
- 大石学(2001) 「近世日本社会の朝鮮人藩士」 『日本歴史(9)』 吉川弘文館 pp83-84
- 大石学(2002) 「近世日本社会の朝鮮人」 『日本歴史(12)』 吉川弘文館 pp92-95
- 大石学(2005) 「近世日本における朝鮮人」 『日本歴史(9)』 吉川弘文館 pp72-77
- 大園弘(1977) 「鍋島更紗雜記 -九山道清と同時代の人々」 『鍋島更紗. 段通展 日本の更紗. 世界の更紗. 段通をたずねて』, 佐賀県立博物館. p.105
- 木部和昭(1999) 「萩藩における朝鮮人捕虜と武士社会」 『歴史評論(593)』 pp.47-59
- 栗原耕吾(2002) 「葉隠にみる朝鮮人. 林栄久父子のこと」 『葉隠研究(48)』, 葉隠研究会. p.41
- 内藤雋輔(1976) 『文祿慶長役における被虜人の研究』, 東京大出版部. pp.736-737
- 中島浩気(1985) 『肥前陶磁史考』 <復刻版>, 青潮社.
- 中里紀元(2002) 「肥前の朝鮮陶工」 『佐賀の歴史と民俗』, 福岡博先生古稀記念誌. p.233
- 小宮陸之(1996) 「洪浩然と佐賀県」 『佐賀県立名護屋城博物館研究紀要(2)』 p.77
- 佐賀県立博物館編(1977) 「九山家. 江口家. 江頭家 家系図」 『鍋島更紗. 段通展 日本の更紗. 世界の更紗. 段通をたずねて』, 佐賀県立博物館. p.116
- 志波深雪(2002) 「多久に伝わる韓国少年の伝説」 『葉隠研究(48)』, 葉隠研究会. pp.25-26
- 鄭光(1990) 『薩摩苗代川伝來の朝鮮歌謠』, 中村印刷株式會社. pp3-157
- 鈴田滋人(2002) 「鍋島更紗. 口伝の謎」 『葉隠研究(48)』, 葉隠研究会. p.31
- 富岡行昌(1983) 「唐津城下の唐人町」 『佐賀県大百科事典』, 佐賀県大百科事典編輯委員会. p.589
- 鶴園裕(1990) 『日本近世初期における渡来朝鮮人の研究 -加賀藩を中心に-』, 科学研究費補助金研究成果報告書
- 寺崎宗俊(1993) 『肥前名護屋城の人人』 佐賀新聞社. p.222
- 三好不二雄(2002) 「佐賀の儒者 洪浩然」 『葉隠研究(48)』, 葉隠研究会. p.23
- 山本常朝(1983) 『葉隠(上)』 <松永義弘 訳>, 教育社. pp.245-246
- _____ (1983) 『葉隠(中)』 <松永義弘 訳>, 教育社. pp.158-159
- _____ (1983) 『葉隠(下)』 <松永義弘 訳>, 教育社. pp.62-63
- 尹達世(2003) 『四百年の長い道』, リーブル出版. pp.164-165

要 旨

本稿は壬辰と丁酉の倭乱によって日本軍に捕虜となり、海を渡って佐賀県に定着した非陶工の人々を中心に考察したことである。彼らは主に唐津と佐賀そして武雄という地域に多く住んでいた。唐津の場合、唐人町という所で木棉と香を製造する朝鮮人たちが多く住んでおり、また高德寺では捕虜の刷還するために朝鮮禮曹から送った論告文が保管されていたことが分った。そして佐賀市では知識階層の朝鮮捕虜も多かった。その代表的な人物としては林栄久、李九山の一族などが挙げられる。林栄久は藩主から信任を受けた医師であった。彼は藩主が死ぬと殉死したいと思ったが達成できず、自分の子供にそれを願った。その結果、彼の次男はそれを実践した。自分の仕えていた主君が死んだ際、殉死する朝鮮人は、ただ林氏一族だけではない。鍋島勝茂が死ぬと、その家臣たちが次から次へ殉死した。そうすると今度はその家臣の家来が殉死することが起きた。大野吉兵衛の家来であった朝鮮人淨真と太左衛門の夫婦の自殺は、まさにそれに属する殉死ではあった。その一方、佐賀の産業に大きく貢献した朝鮮人捕虜もいた。製薬と更紗技術を開発した李九山をはじめ無名の行李工、 飴工、 織工たちがそれである。そのほか楨忠左衛門という少年捕虜もいた。多久には養父母に殺された朝鮮少年捕虜の話があった。この話は才能のある少年捕虜だったらその才能を高く評価し自分の養子にすることもあったあるが、万が一その才能が自分たちに威脅になると、早速除去してしまう人間の冷酷さがある。このように佐賀県の朝鮮捕虜たちは社会的に安定された生活をするためには武士になった捕虜は、切腹殉死するほど主君への忠と義を守り、一般人たちは独特の専門的な技術と特徴を持ってい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これは日本での朝鮮捕虜の社会的な地位がいかに不安定であったかをよく示されていると見なされる。

キーワード： 壬辰倭乱、丁酉倭乱、朝鮮捕虜、唐津、佐賀、武雄

투 고 : 2009. 5. 31
1차 심사 : 2009. 6. 13
2차 심사 : 2009. 6. 27